

##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 구조모형

박복순<sup>1</sup>, 김주현<sup>2\*</sup>

<sup>1</sup>강원관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tention of Revision Facial Cosmetic Surgery in Female College Students

Bock Soon. Park<sup>1</sup>, Joo Hyun, Kim<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Tourism College,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미치는 이론 변수들 간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며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은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여대생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2014년 9월 20일까지 설문지 320부 중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응답이 불확실한 5부를 제외한 총 29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는 인지부조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는 재수술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외모지상주의는 인지부조화를 매개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hypothetic model for the influential theoretical variables for the facial cosmetic resurgery inten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cosmetic surgery experience and to examine the compatability of the re-surgery intention model with real data.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20 selected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d undergone cosmetic surgery.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5 to September 20, 2014, the answer sheets from 300 respondents were gathered, and the answer sheets from 295 respondents were analyzed except for the five ones that included uncertain answers. As a result, it's ascertained that cognitive dissonance was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post-surgery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elf-esteem, subjective norm and lookism.. Self-esteem, subjective norm and lookism had a direct impact on resurgery intention, and self-esteem and lookism affected resurgery intention both in direct and indirect ways through the medium of cognitive dissona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geared toward promot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Keywords** : Female college student, Facial cosmetic resurgery intent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인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여대생들은 내면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며, 패

션이나 외모를 통해 개성을 표출하려는 의도의 표출로 성형요구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더 나아가 유행,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태도와 개성표출에 관련된 요인들이 특히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미용성형

\*Corresponding Author : Joo Hyun, Kim(G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Tel: +82-33-250-8882 email: joohkim@ kangwon.ac.kr

Received October 26, 2015

Revised (1st November 24, 2015, 2nd November 26,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성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2]. 특히, 여대생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별개로 유행처럼 번지는 경향이 있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미용성형 외과수술은 77만 건으로 세계 7위이며, 인구 비율로 보면 1000명당 0.65명으로 세계 1위의 미용성형을 시행하고 있다. 여대생의 미용성형수술 경험을 역시 12.4%에서, 2013년 44.1%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3]. 이렇듯 ‘성형공화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용성형이 시행되고 있으며[2], 이러한 미용성형의 열풍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단편적인 폐해로 부작용이나 후유증,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짐과 동시에[4], 노출되지 않은 미용성형은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병태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성형을 하는 결정적 요인은 자기의식의 정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대상자들은 신체적 변화가 심리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가정하고, 기대하는 변화는 본인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의 향상, 자기개념의 강화를 통해 최상의 이미지 연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5]. 이에 따라 미의식 욕구가 매우 강하고, 외모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미용성형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수술 의도까지 발생하고 있다[6].

미용성형과 관련되어 부작용으로는 수술 전·후의 신체상, 자아존중감의 변화, 여대생의 외모지상주의, 미용성형 후 외모 만족도, 미용성형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여대생들은 미용성형을 반복하여 시행하거나 동시에 여러 곳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수술 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본인 스스로의 동기나 결정요인에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5]. 이와 결과로 여대생들은 미용성형을 반복하고 미용성형에 대한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용성형 행동이 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나 불안 감정까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인지부조화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7].

인지부조화이론은 인간의 인지와 행동의 불일치로 인

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긴장이 유발될 때, 그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 이것은 부정적적인 감정이기에는 하나 부조화 감소라는 자기합리화 과정에 따라 미래의 재수술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써 중요한 이론이다[8]. 재수술 의도의 가능성은 이전의 인지부조화가 크면 클수록 재발 가능성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수간의 통합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미용성형과 관련된 연구들은 수술 전·후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변화[9], 여대생의 미의식과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1], 미용성형을 받은 환자들의 태도[2], 미용성형으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10], 주관적 규범이 성형행위 의도[11]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여대생의 미용성형과 관련된 요인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대상자의 인지부조화를 적용하여 연구한 국내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변수가 매개변수인 인지부조화의 정도에 따라 재수술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제적 결과를 검증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규명하여 건강한 미용성형 간 호전락을 개발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미치는 이론 변수들 간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며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 1.3 연구의 개념 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틀들은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지부조화이론[12]을 토대로 선행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여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가 인지부조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재수술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인지부조화가 재수술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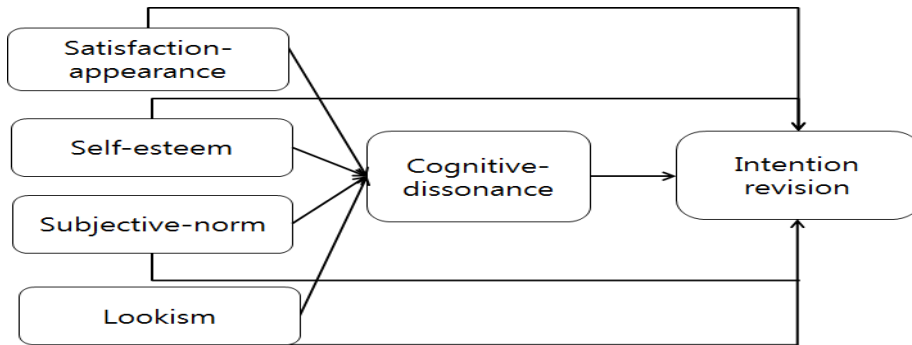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선행연구 결과 인지부조화가 낮을수록 재수술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13], 미용성형을 경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수술 후 외모만족도는 재수술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자아존중감은 성형수술 경험자의 자아존중감과 재수술 의도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Lee[1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주관적 규범이 미용성형 행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11], 외모지상주의가 미용성형수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11]를 바탕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요인들 간의 인과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미용성형수술의 재의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지부조화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토대로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여대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3, 4년제 대학교 여학생들이다. 표본 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16] 근거하여 본 연구의 8개의 측정변수에

15배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29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로 구성된다. 매개변수는 인지부조화이며, 종속변수는 얼굴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로 대하여 원저자 및 수정·보완한 저자 혹은 승인 위임자로부터의 각각 동의와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였다.

#### 1) 재수술 의도

재수술 의도는 대상자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미용성형을 반복하여 시행 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Choi[17]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1항목을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는 얼굴미용성형으로 제한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반화 되어있는 눈 쌍꺼풀, 코, 안면윤곽술, 박피 정도를 척도에 넣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17]의 연구에서 Cronbach's =.7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6이었다.

#### 2)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는 미용성형 결정에 대한 불안의 정도, 올바른 의사결정 이었는지에 대한 의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Nam 등[13]이 번역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Nam 등[13]의 연구에서 Cronbach's =.7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5이었다.

### 3) 수술 후 외모만족도

수술 후 외모만족도란 미용성형 후 외모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 즉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Kim[18]이 개발한 미용성형 후 외모만족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은 7~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 후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6이었다.

###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Choe[19]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e[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3이었다.

### 5)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는 사람이 미용성형 행위에 대해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Primack, Switzer와 Dalton[20]의 도구를 본 연구자가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은 4점~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rimack, Switzer와 Dalton[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 6)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로 여겨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인 외모지상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Kang[6]이 개발한 외모지상주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은 24점~120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지상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Cronbach's  $\alpha$  =.80로 나타났다.

## 2.4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는 K대학교 연구 대상자 보호 심사위원의 심의(KWNUIRB -2014 -06-005-001)를 받았고, 도구개발 기관과 도구개발자들에게 직접 승인요청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도구사용의 목적과 논문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은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각 대학, 대학교 학과장 및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 내용을 설명 후, 동의서를 먼저 읽도록 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 미용성형을 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2014년 9월 20일까지 설문지 320부 중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응답이 불확실한 5부를 제외한 총 29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SPSS 22.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수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서술적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넷째, 표본의 정규성은 SPSS 22.0으로 기술통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다섯째,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은 AMOS 20.0으로 검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hi^2$ ,  $\chi^2/df$ ,  $\chi^2/df$ , 기초부합 지수, 조정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 비교부합지수, 근사오차평균자승잔차를 이용하였다. 수정 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고정지수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경로계수 및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붓 스트래핑방법을 이용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는 학년별로 3,4학년이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21-24세가 63.9%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가 81명(27.8%), 25세 이상이 28.2%을 차지하여, 일반적인 여대생이 분포하고 있는 24세까지가 전체의 91.8%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의 경우는 무교 49.5%이며, 가족과 함께 거주가 54.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의 형태는 20~30만원이 38.0%으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들의 전공으로는 자연과 학계열 60.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외모 관리 비용은 5~10만원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 3.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통계 분석결과와 Table 1과 같고 재수술 의도는 평균 3.15(±0.88)점 이었고, 인지부조

화는 평균 3.49(±0.77)점, 수술 후 외모만족도는 평균 3.57(±0.47)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62(±0.54)점, 주관적 규범은 평균 2.25(±0.83)점 이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의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인식은 평균 3.87(±0.61)점, 외모에 대한 관심은 평균 3.76(±0.63)점, 사회·문화적 가치내재화는 평균 2.91(±0.75)점, 외모만족도는 평균 2.75(±0.58)점, 신체만족도는 평균 3.23(±0.73)점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조사한 결과, 왜도는 절대 값이 3이하, 첨도는 절대 값이 7이하로 표본의 일변량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재수술 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인지부조화( $r=-.29, p<.001$ ), 수술 후 외모만족도( $r=.21, p<.001$ ), 주관적 규범( $r=.34, p<.001$ ), 외모지상주의( $r=.30, p<.001$ )로 나타났다. 인지부조화에 유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변수는 수술 후 외모만족도( $r=.23, p<.001$ ), 자아존중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95)

Variables	Categories	n(%)
Grade	1	43(14.6)
	2	43(14.6)
	3	115(39.1)
	4	93(31.6)
Age(year)	<20	81(27.8)
	21-24	186(63.9)
	>25	24(8.2)
Religion	Christianity	72(24.4)
	Catholicism	39(13.2)
	Buddhism	34(11.5)
	Others	4(1.4)
	None	146(49.5)
Cohabitant	Living with family	155(54.0)
	Studio apartment	74(25.8)
	Dormitory	55(19.2)
	Others	3(1.0)
Monthly allowance	<20	48(16.3)
	21-30	112(38.0)
	31-40	83(28.1)
	41-50	29(9.8)
	>50	23(7.8)
Subject	Humanities and social	63(21.5)
	Natural science	176(60.1)
	Arts and sports	54(18.4)
Cost of cosmetic surgery	<5	65(22.1)
	6-10	122(41.5)
	11- 20	76(25.9)
	21-30	20(6.8)
	>30	11(3.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295)

Variables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Intention revision	3.15±0.88	1	5	-0.09	-0.28
Cognitive dissonance	3.49±0.77	2	5	-0.16	0.18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3.57±0.47	1.6	5	0.09	0.61
Self-esteem	3.62±0.54	1	5	-0.09	0.56
Subjective norm	2.25±0.83	2	5	0.26	-0.15
Lookism recognition	3.87±0.61	2	5	-0.30	0.28
Lookism interest	3.76±0.63	1	4.75	-0.24	0.03
Lookism-social cultural internalized value	2.91±0.75	1	4.25	0.03	0.04
Lookism-appearance satisfaction	2.75±0.58	1	5	-0.16	0.15
Lookism body satisfaction	3.23±0.73	5	3.23	-0.13	0.02

( $r=.31, p<.001$ ), 주관적 규범( $r=-.23, p<.001$ ), 외모지상주의( $r=-.18, p<.002$ )이었으며, 수술 후 외모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변수는 자아존중감( $r=.31, p<.001$ ), 외모지상주의( $r=.20, p<.001$ )였다[Table 2].

### 3.3 가설적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모든 측정변수를 투입한 초기 가설모형의 적합도는  $\chi^2=220.32, p<.001, RMSEA=.16, GFI=.72, CFI=.92, NFI=.66, AGFI=.72$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AMOS의 진단지표 중 하나인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로 모형의 경로를 수정하였다. 수정 후 가설적 모형에서 측정변수들 중 수정지수가 같은 하위요인끼리 관계가 있는 것보다 다른 하위요인과의 관계가 더 높게 나오게 되어 두 변수 중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여 수정지수 값만큼 카이제곱 값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21]. 가설적 모형에서 외모지상주의 하위요인 중 사회·문화적 가치 내재화,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의 수정지수가 10 이상이므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관련이 없음이 확인 되었기에 위의 변수를 제거하

였다. 이를 통한 본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서  $\chi^2=7.04, df=4, p=.134, \chi^2/df=1.75$ 로 유의수준에서 적합하였다. 수정모형의  $GFI=.99, AGFI=.95, RMSEA=.05, NFI=.98, CFI=.99$ 로 나타나 모든 적합 기준들이 권장수준을 만족하였다.

### 3.4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 추정계수 검증

연구모형에서 표준화 경로 추정계수 값과 유의수준은 Table 2와 같으며, 표준화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수정모형을 제시하면 Fig 2와 같다. 본 연구의 수정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인지부조화를 설명하는 경로 가운데 수술 후 외모만족도( $\beta=.32, p<.001$ ), 자아존중감( $\beta=.23, p<.001$ ), 주관적 규범( $\beta=-.16, p=.004$ ), 외모지상주의( $\beta=-.33, p<.001$ )가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24.5%였다. 재수술 의도를 설명하는 경로 가운데 주관적 규범( $\beta=.18, p<.001$ ), 외모지상주의( $\beta=.47, p<.001$ ), 인지부조화( $\beta=-.14, p=.025$ )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37.7%였다[Table 3].

Table 3. Standardized estimations of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RW	SRW( $\beta$ )	S.E	CR(p)	SMC
Cognitive dissonance						.245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52	.32	.11	4.95(<.001**)	
	Self-esteem	.32	.23	.08	4.12(<.001**)	
	Subjective norm	-.15	-.16	.05	-2.87(.004**)	
	Lookism	-.78	-.33	.19	-4.08(<.001**)	
Intention revision						.377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09	.05	.11	.66(.511)	
	Self-esteem	-.16	-.10	.09	-1.84(.066)	
	Subjective norm	.19	.18	.06	3.46(<.001**)	
	Lookism	1.30	.47	.25	5.15(<.001**)	
	Cognitive dissonance	-.16	-.14	.07	-2.24(.025*)	

\* $p<.05, **p<.01, RW$ : Regression Weights, S.E: Standardized Estimates,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p)	Standardized indirect effect(p)	Standardized total effect(p)
Cognitive dissonance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52(.010) <sup>*</sup>		.52(.010) <sup>*</sup>
	Self-esteem	.32(.010) <sup>*</sup>		.32(.010) <sup>*</sup>
	Subjective norm	-.15(.025) <sup>*</sup>		-.15(.025) <sup>*</sup>
	Lookism	-.78(.010) <sup>*</sup>		-.78(.010) <sup>*</sup>
Intention revision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09(.467)	-.08(.047) <sup>*</sup>	.00(.996)
	Self-esteem	-.16(.048) <sup>*</sup>	-.05(.047) <sup>*</sup>	-.21(.040) <sup>*</sup>
	Subjective norm	.19(.010) <sup>*</sup>	.02(.067)	.22(.010) <sup>*</sup>
	Lookism	1.30(.010) <sup>*</sup>	.12(.047) <sup>*</sup>	1.42(.010) <sup>*</sup>
	Cognitive dissonance	-.16(.047) <sup>*</sup>		-.16(.047) <sup>*</sup>

\* p<.05

### 3.5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Table 3은 가설적 모형의 표준화된 수정모형의 외생 변수들이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인지부조화를 내생변수로 할 경우, 수술 후 외모만족도( $\beta=.52, p=.010$ ), 자아존중감( $\beta=.32, p=.010$ ), 주관적 규범( $\beta=-.15, p=.025$ ), 외모지상주의( $\beta=-.78, p=.010$ )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재수술 의도를 내생변수로 할 경우, 수술 후 외모만족도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beta=.09, p=.467$ ), 간접효과는 있었으며( $\beta=-.08, p=.047$ ), 총효과는 없었다( $\beta=.00, p=.996$ ). 자아존중감은 직접효과( $\beta=-.16, p=.048$ ), 간접효과( $\beta=-.05, p=.047$ ), 총효과( $\beta=-.21, p=.040$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직접효과는 있었으나( $\beta$

$=.19, p=.010$ ), 간접효과는 없었으며( $\beta=.02, p=.067$ ), 총효과는 있었다( $\beta=.22, p=.010$ ). 외모지상주의는 직접효과( $\beta=1.30, p=.010$ ), 간접효과( $\beta=.12, p=.047$ ), 총효과( $\beta=1.42, p=.010$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인지부조화는 재수술 의도에 직접효과, 총효과( $\beta=-.16, p=.047$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지부조화는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가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재수술 의도의 경우 총효과는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 인지부조화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효과의 경우는 자아존중감과 외모지상주의가 나타났다. 따라서 두 변수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인지부조화에 의한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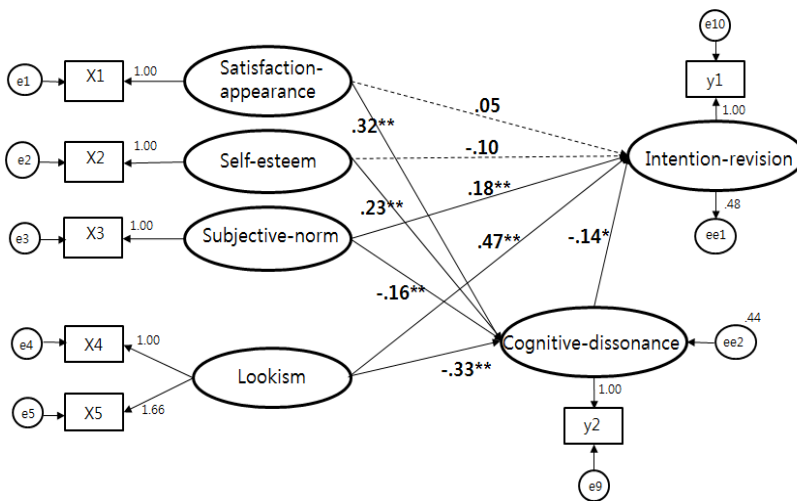


Fig.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 p<.05, \*\* p<.01, x1 Satisfaction appearance after surgery, x2 Self-esteem, x3 Subjective norm, x4 Lookism-recognition, x5 Lookism-interest, y1 Intention revision, y2 Cognitive dissonance

#### 4. 논의

본 연구는 인지부조화이론을 근간으로 여대생의 얼굴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를 증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및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의 선행변수와 인지부조화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결과 여대생의 인지부조화에는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첫째, 여대생의 수술 후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부조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 등[22]의 소비자 구매 만족도의 연구에 의하면 구매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부조화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상품구매 시 고객들에게 나타나는 인지부조화는 상품구매와 미용성형 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품 구매 후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성형수술은 서비스상품의 무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제조품처럼 미리 상품을 보고 테스트해볼 수도 없고, 수술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수술 후 외모만족도가 높을지라도 수술 시 또는 수술 후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불안감, 수술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 재수술 등의 추가비용에 따른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수술 행위에 대한 불안과 후회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23]. 결론적으로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을지라도 미용성형에 대한 위험도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인지부조화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22]. 이에 따라 대학생의 미용성형 시 그들의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변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지부조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보다 외모향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미용성형의 이용이 증가하였다[19]. 이에 따라 성형수술에 대한 인지부조화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확인되어지지

않았지만 미용성형 미경험자와 유경험자는 동일하게 성형수술이라는 딜레마 앞에서 인지부조화의 불안 감정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미용성형 경험에 인지부조화를 추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병원에서 의학적 수단을 통해 외모를 변형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위험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결정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 여전히 성형수술에 의한 인위적 외모변화는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을 생각하는 대상자들에게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여대생의 미용성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낮을수록 인지부조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Venkatesh와 Davis[24]의 연구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나 또래들로부터 전해들은 미용성형 관련 간접정보를 통해 성형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oo[11]의 연구에서도 미용성형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인으로 부모, 친구 혹은 이성 친구의 주관적 규범이 미용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어진 미용성형 의도에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용성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낮다는 것은 개인의 외모를 변형하는 중대한 결정에서 의학적 정보, 미용성형의 부작용, 미용성형의 예후에 대한 정보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결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성형수술에 대한 인지부조화를 부추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대생은 자기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자신감 확립과 자기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외모지상주의가 낮을수록 인지부조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이 한 번 이상으로 확인되어짐으로 본인의 외모에 대한 외모지상주의가 낮다고 볼 수 있겠고, 성형 결과 외모가 향상되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신체상에 가깝게 도달하여, 스스로의 신체만족도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한 번 이상의 미용성형수술 경험은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생활태도와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25]. 21세기 사회



문화현상은 외모관리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외모 바꾸기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면서 미용성형을 통하여 외모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수술로 인한 심리적 향상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영구적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6] 이러한 개인의 외모지상주의는 성형수술 시 개인적인 선택과 인지부조화 사이에서 서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여대생은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스스로의 판단에서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일정한 심리적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인지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인지들이 서로 일관되고 긍정적일 것을 기대하지만 일관되지 않는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혼란을 경험 할 수 있다.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의 선행변수, 매개변수와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는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는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 인지부조화가 직접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중 외모지상주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또한, 자아존중감, 외모지상주의는 인지부조화 통해서 얼굴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여대생의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외모지상주의로 나타났다. 외모지상주의는 재수술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부조화를 매개로 하여 재수술 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Yoon[27]의 연구 결과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미용성형수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가 외모지상주의, 성형수술 의료계의 비즈니스 전략, TV 등 대중매체에서 성형화된 외모로 활약중인 연예인들의 모습이 여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미용성형의 동기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모향상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상업주의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외모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관념이 점점 확산되고, 외모중심의 고용중대로 인해 성형수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려는 경쟁사회의 한 단면으로 보여진다[1]. 현대사회는 외적인 비주얼의 가치화 부각현상으로 자기 자신의 자신감 상승과 개인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자기만족으로 성형수술을 한 번 시도한 이후 또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대생의 외모지상주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의 경험이 반복되며, 또한, 미용성형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미용성형을 통해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모지상주의 욕구가 강화되어 미적 기준 상승으로 새로운 외모향상추구 동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은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형수술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었지만, 타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28]. 외모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과 연결되며, 외모평가를 신체존중감이란 용어로 측정한 Jeon과 Chung[2]의 연구에서 보면 신체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성형수술을 더 하었다고 하였으나, Gim과 Cha[29]의 연구에서는 신체존중감이 낮으면 외모관리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여 Jeon과 Chung[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미용성형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 또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30].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재수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ac[31]의 연구에서 성형을 경험한 집단에서 외모를 더 중요시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를 더 중요시하여 재수술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모를 어떤 상대적인 재산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긴 그대로의 몸을 사랑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28], 또한, 건강하고 자연적인 신체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외모보다 바른 마음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더 필요하겠다.

셋째, 주관적 규범은 여대생의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대생의 성형수술에 관한 Polivy와 Herman[5]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Koo와 Kim[32]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여대생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시하며, 부모와 친지, 친구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주관적 규범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작용 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여대생들은 바른 체형이

아름답고 성적 매력이 있으며, 주위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사회적 압력이 여대생들의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것이다. 미용성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실제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대한 담론이 가장 가까운 친구나 형제·자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미용성형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시 정확하고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미용성형에 대한 인지부조화가 결과변수인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부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용성형에 대한 인지부조화 수준이 낮을수록 재수술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m 등[7]의 연구에서 인지부조화가 낮을수록 재구매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미용성형 후 발생하는 인지부조화가 결국 재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용성형 이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여대생들이 이와 같이 낮은 인지부조화로 성형 재수술 의도를 시도하며, 인지부조화는 대상자의 태도변화, 의견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용성형 수술 전에 미용성형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신체적,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병태적 문제를 인식시킴으로써 무분별한 미용성형 재발을 막아야 하며, 소비자들은 성형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선택해서 보기보다는 우연히 노출되는 광고나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스럽게 정보전달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4]. 따라서 사회전체의 획일화된 외모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과 여대생의 건강한 이미지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용성형 의도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현대의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여대생들의 무분별한 성형 인식의 변화로 인해 사

회병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요인의 상호중재 개발 및 평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수술 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는 인지부조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주관적 규범, 외모지상주의는 재수술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외모지상주의는 인지부조화를 매개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용성형 재수술 의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한 상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 고 대학생의 얼굴미용성형에서 개인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미용성형 중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여대생의 얼굴미용성형은 개인적·사회적 성향에 영향을 받고 이는 또한, 사회적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것으로, 이들 영향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 Lee, H. S. Lim, & K. S. Chang, "Status of perceptions for appearance and cosmetic surgery among university freshmen Dongguk", *Journal of Medicine*, Vol. 13, No. 1, pp. 27-36, 2006.
- [2] H. J. Jeon, & M. S. Chung, "The effects for social 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esteem on cosmetic surgeries", *Journal Korea Society Cosmetic*, Vol. 16, No. 3, pp. 734-741, 2010.
- [3]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1; Countries by total number of procedures, from alysis ISAPS Survey. 2011. [http://www.ISAPS.org/uploads/news\\_pdf/An](http://www.ISAPS.org/uploads/news_pdf/An)
- [4] J. H. Lee, S. J. Yoon, & H. E. Han, "The Effect of Lifestyle Which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Cosmetic Surgery: Ba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xposure to the Media", *Korean Society of Culture Industry*, Vol. 12, pp. 85-96, 2013.
- [5] J. Polivy, & P. Herman, "Is the body the self woman and body image. *Collegium Anthropological*", Vol. 31, No. 1, pp. 63-67, 2007.
- [6] Y. K. Kang, "Christian student's self-ident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uprem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2004.
- [7] M. J. Nam, J. W. An, M. H. Cho, & C. Jeong,

- “Cognitive dissonance in post decision making and behavioral intention for eating out”,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Vol. 21, No. 1, pp. 129-144, 2012.
- [8] R. L. Oliver,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2nd New York: McGraw-Hill, 1997.
- [9] K. R. Jeon, & M. H. Lee, “A study on the need, self-esteem, and aesthetic surgery attitude of fema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52, No. 6, pp. 71-83, 2002.
- [10] M. R. Wrigh, & W. K. Wrigh, “A psychological study of patients undergoing cosmetic surgery”, *Arch Otolaryngol*, Vol. 101, No. 3, pp. 145-151, 1975.  
DOI: <http://dx.doi.org/10.1001/archotol.1975.00780320003001>
- [11] H. J. Woo, “A study on chinese college students’ behavioral intention to plastic surgery in south korea affected by watching korean television drama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8, No. 4, pp. 480-513, 2008.
- [12] L. L.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 isson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 7.
- [13] M. J. Nam, J. W. An, M. H. & Cho, C. Jeong, “Cognitive dissonance in post decision making and behavioral intention for eating out”,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Vol. 21, No. 1 pp. 129-144, 2012.
- [14] K. W. Choi, & S. I. Lee, “The psychological attribut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patients and effect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e Association*, Vol. 40 No. 4, pp. 559-568, 2001.
- [15] J. Y. Lee, & T. G. An,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forecast the food purchase in festivals”, *The Korea Contents Societ*, Vol. 8 No. 2, pp. 116-124, 2007.  
DOI: <http://dx.doi.org/10.5392/JKCA.2008.8.2.116>
- [16] J. P. Stevens,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9.
- [17] Y. J. Choi, “A study on military personnels’ school-aged children’s quality of life and behavioral profi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5.
- [18] M. Rosenberg, C. Schooler, & C. Schoenbach,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No. 6, pp. 1004-1018, 1989.  
DOI: <http://dx.doi.org/10.2307/2095720>
- [19] J. A. Choe, “Self-consciousness and self-esteem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the consul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96.
- [20] B. Primack, G. Switzer, & M. Dalton, “Improving measurement of normative beliefs involving smoking among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Vol. 161, No. 56, pp. 434-439, 2007.  
DOI: <http://dx.doi.org/10.1001/archpedi.161.5.434>
- [21] G. S. Kim,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odeling. Seoul”, Hannarae Publishing Community, 2010.
- [22] H. J. Ko, S. J. An, J. Y. Han, & J. Y. Yoon, “Effect of cognitive dissonance in franchise food service advertisemen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post-purchase behavior”,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Vol. 28, No. 6, pp. 631-639, 2013.  
DOI: <http://dx.doi.org/10.7318/KJFC/2013.28.6.631>
- [23] A. Bawa, & P. Kansal, “Cognitive dissonance and the marketing of services: some issues. *Journal of Services Research*”, Vol. 8, No. 2, pp. 31-51, 2009.
- [24] V. Venkatesh, & F. D. Davis,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 46, No. 2, pp. 186-204, 2000.  
DOI: <http://dx.doi.org/10.1287/mnsc.46.2.186.11926>
- [25] M. P.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feriority complex, frustration syndrome, sexual health and cosmetic surgery addiction among secondary student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17, No. 3, pp. 69-98, 2012.
- [26] M. H. Jang, & G. G. Lee, “Body image dissatisfaction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BMI,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ts: A multiple-group path analysis across gen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43, No. 2, pp. 165-175,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2.165>  
<http://dx.doi.org/10.4040/jkan.2013.43.2.165>
- [27] S. J. Yoon, “A Study on the purchase decision making regarding cosmetic surgery services: centered on cultural values and media exposure”, *Journal of Culture Industry*, Vol. 13. No. 2, pp. 11-20, 2013.
- [28] Y. R. Cha, & G. B. Kim,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for makeup, plastic operation intention and self-esteem, body-estem of korean wome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580-508, 2006.
- [29] W. S. Gim, & J. H. Cha, “Body-related values and consumer behavior: an exploratory study for scale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7. No. 3, pp. 455-485, 2006.
- [30] D. J. Han, & K. S. Park, “A study of external appearance management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make-up and cosmetic surgery”, *Journal of Korea Society Cosmetic*, Vol. 14. No. 2, pp. 622-632, 2008.
- [31] H. W. Ae, “Instant Bodily Transformation’ and the Affect of Body-Management Using Cosmetic Surgery Technology”, *Gender and Culture*, Vol. 5, No. 2, pp. 79-111, 2012.
- [32] K. Y. Koo, & M. S. Kim, “The Study of Medical tourism Plastic Cosmetice Surgery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Chinese tourist”,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 25, No. 3, pp. 91-106, 2013.

**박 복 순**(Bock-Soon.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강원관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 간호

---

**김 주 현**(Joo Hyun, Kim)

[정회원]



- 1977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초간호자연과학